

10년 안에 30%가 1인가구...비혼·사별로 독거 늘어

통계청 '시도별 장래가구추계(17-47년)'...가구수 40년부터 감소

미혼·고령화·독거 추세 영향, 2047년까지 '여성 가구주' 증가

지금부터 9년 뒤인 2028년이면 우리나라 모든 시·도의 가구 중 '독거 가구' 비중이 가장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젊은 층에서는 미혼자가 늘어나고 고령층에서는 여성 기대수명 증가로 남편을 사별한 여성인구가 많아지면서 '여성 가구주'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통계청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도별 장래가구추계(2017-2047)'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가구수는 2017년 기준 1957만1000가구였다. 가구수는 2040년 2265만1000가구를 정점으로 감소를 시작해 2047년 2230만 가구를 기록한다.

독신 증가·고령화에 따른 사별·부부 증가 등에 따라 전체 가구 중 1인가구 비중은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인가구 비중은 2017년

에 28.5%였으나 2027년에 32.9%, 2047년에는 37.3%가 된다. 10집 중 4집이 독거가구인 셈이다. 특히 2028년에는 모든 시·도에서 가구형태 중 1인가구 비중이 가장 높아지게 된다.

지역별로 보면 2047년이 되면 강원·충북·대전 등에서 10집 중 4집 꼴로 독거가구가 될 전망이다. 2017년 기준 1인가구 비중은 강원과 경북에서 각각 32.2%, 31.9%로 가장 높았다. 2047년에는 강원 41.9%, 충북 41.8%, 대전 41.7%꼴로 1인가구 비중이 크게 늘어난다.

1인가구의 가구주 연령대도 빠르게 높아진다. 2017년에는 1인가구 가구주 중 39세 이하가 35.6%로 가장 많았고 60세 이상은 32.0%였다. 그런데 2047년에는 60세 이상이 56.8%로 가장 많아지고 39세

이하 18.9%로 쪼그라들 전망이다.

출산율 저하의 영향으로 부부와 자녀가 함께 사는 가구의 비중은 빠르게 감소할 전망이다. 부부와 자녀가 함께 사는 가구는 2017년 31.4%로 가장 많지만 2047년에는 16.3%로 절반 수준이 된다. 반대로 부부만 함께 사는 가구는 2017년 15.8%에서 2047년 21.5%로 늘어난다. 다만 증가분은 대부분 60세 이상 노부부가 차지한다.

지역별로 2017-2047년 사이 가구 증가율은 △세종 155.5% △제주 53.2% △충남 33.4% 순으로 높았고 △부산 -4.7%, 서울 -2.4% △대구 -1.0% 순으로 낮았다.

1인가구 증가와 같은 맥락으로 여성 가구주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 가구주 비중은 2017년 30.4%였으나 2047년 39.2%로

증가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는 젊은 층에서는 미혼추세가 심화하고, 고령층에서는 기대수명 연장에 따라 남편을 사별한 여성인구가 많아지는 탓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2028년 출산을 마지막으로 모든 시도에서 1인가구가 대세가 된다"며 "만혼·비혼 추세로 혼인이 감소하는 추세고 혼인을 하더라도 출산

을 지연하는 저출산 기조가 계속되는 것이 원인이다. 여성 가구주 비중이 높아지는 것도 1인가구가 늘어나는 것과 비슷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기아 1호차 전달식 16일 서울 강남구 기아자동차 브랜드 체험관인 '비트 360'에서 열린 '3세대 K5 퍼스트 플레이어' 선정 기념 행사에서 1호차 주인공에 선정된 김동규 씨가 기아차 임직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말 술자리 줄었다는데... '숙취해소' 상품 매출은 증가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술자리 중심의 회식 문화가 점차 줄어드는 가운데, 숙취해소 상품의 매출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술을 마시는 장소가 회사 주변 음식점에서 집으로 바뀌었을 뿐, 술 마시는 수요는 줄지 않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BGF리테

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CU의 최근 한달간(11월12일~12월11일) 숙취해소 상품의 전년 대비 매출은 23.6%, 전월 동기 대비 4.8% 증가했다. GS25의 숙취해소 상품 매출도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7.4%, 전월 동기 대비 8.3% 증가했다.

숙취해소 상품의 매출 증가를 이끈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은 바로 환 제품이다. CU와 GS25의 숙취해소 음료의 매출은 전년 대비 각각 16.7%, 15.3% 늘었다. 이에 반해 환 제품의 매출은 전년 대비 각각 30.8%, 38.3%로 크게 올랐다.

숙취해소 제품의 매출 신장동은 주 52시간제, 부정청탁금지법,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등으로 회식 문화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반된다. 밀레니얼 세대 직장인 대다수가 술자리를 선호하지 않는 탓에 연말 송년회

가 문화 공연 관람, 고급 레스토랑 방문 등으로 점차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회식 자리가 줄고 간소화되면서 외식 산업은 큰 타격을 입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외식 산업경기지수는 66.01을 기록했다. 연도별로 보면, 외식산업경기지수는 2014년 71.91에서 2015년 70.28, 2016년 70.24, 2017년 67.89, 지난해 67.51로 꾸준히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다.

그럼에도 숙취해소 상품의 매출이 꾸준히 늘고 있는 이유는 술을 마시는 수요 자체가 줄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CU 관계자는 "맥주, 소주, 와인 등 주류 판매 매출은 꾸준히 오르고 있다"면서 "회사가 아닌 집에서 음주를 즐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뉴스1

농협·수협서 1억 빌린 차주, 수수료 연간 96만원 아낀다

상호금융조합 대출 이용자의 수수료 부담이 오는 23일부터 대폭 줄어든다. 은행·저축은행과 동일하게 일반적인 법인·개인사업자 대출의 취급수수료와 가계차주의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수수료가 폐지된다. 현행 3%인 중도상환 수수료도 다른 권역과 같이 2%로 하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상호금융권 대출수수료 제도 개선방안을 내놨다. 상호금융권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데도 은행·저축은행에 비해 대출수수료율이 높고, 타업권에서는 이미 폐지한 수수료를 받는 관행이 남아 있어 개선에 나선 것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연간 대출수수료 부담액 총 1494억원 줄어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대출취급수수료를 낮춘다. 은행·저축은행과 동일하게 일반적인 법인·개인사업자대출의 취급수수료를 폐지한다. 현재 일부 조합은 모든 법인·개인사업

자대출에 대해 취급수수료를 부과해 왔다.

오는 1월부터 공동대출 취급수수료를 상한을 신설한다. 상한선은 2%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회가 제정한 내구상 공동대출 취급수수료를 상한이 없어 일부 조합은 과도한 수수료를 받고 있다. 대출취급수수료를 받은 공동대출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일부 조합은 대출취급수수료를 받은 후 중도상환 때 별도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금융위는 연간 대출취급수수료 총 절감액이 95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억원 대출취급 때 법인·개인사업자 차주의 대출취급수수료는 약 95만8000원이 줄어드는 규모다.

한도대출수수료도 손본다. 오는 23일부터 가계차주의 한도대출수수료를 폐지한다. 상호금융권은 은행·저축은행과 달리 가계차주의 한도대출에도 수수료

를 부과하고 있다. 한도대출 수

료를 상한도 한도약정은 0.5%, 한도미사용은 0.7%로 하향 조정한다. 일부 조합은 관행적으로 은행(0~0.7%)과 다른 조합(0.5%)보다 한도대출수수료 상한이 1~2% 높았다.

연간 한도대출수수료 총 절감액은 496억원으로 추정된다. 1억원의 한도대출을 받은 경우 가계차주는 약 45만5000원, 법인·개인사업자 차주는 약 50만2000원의 한도대출수수료가 경감된다.

연간 중도상환수수료 총 절감액은 466억원으로 추산된다. 금융당국은 오는 23일부터 중도상환수수료 상한을 기존 3%에서 2%로 내린다.

금융위는 "각 상호금융중앙회별로 내규, 대출거래 약정서, 상품설명서 등을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라며 "다만 공동대출 관련 사항은 내년 1월에 개정·시행하되, 전산 개발이 필요한 사항은 4월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1

광주, 대한민국! 미래로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

GWANGJU